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 학위논문

# 장애학생의 국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윤희

# 장애학생의 국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율 희

# 장애학생의 국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지도교수 정은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율 희

김윤희의 교육학석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vii
ABSTRACT .....	viii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용어의 정의 .....	4
<b>II. 이론적 배경 .....</b>	<b>5</b>
1. 국악교육의 의의 및 특성 .....	5
2. 장애학생의 국악교육 .....	8
3. 선행연구 고찰 .....	10
4.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 및 특성 .....	14
<b>III. 연구방법 .....</b>	<b>16</b>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및 검색 .....	16
2. 분석 기준 .....	17
3. 신뢰도 .....	18
4. 자료처리 .....	19
<b>IV. 연구결과 .....</b>	<b>20</b>
1.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	20

2.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21
3.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 .....	22
4. 연도별 연구현황 분석 결과 .....	24
5.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 분석 결과 .....	25
V. 논의 .....	26
VI. 결론 및 제언 .....	30
1. 결론 .....	30
2. 제언 .....	32
참고문헌 .....	34
분석논문 .....	39
국문초록 .....	44

## 표 목 차

<표 III-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	18
<표 IV-1>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	20
<표 IV-2>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21
<표 IV-3> 연구대상의 학교 급별에 따른 분석 결과 .....	22
<표 IV-4>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23
<표 IV-5> 발행년도별 논문 현황수 .....	24
<표 IV-6> 국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결과 .....	25



## ABSTRACT

###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Kim Yule Hee

Advisor : Prof. Jeong Eun-Hee Ph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domestic research trends by analyzing domestic studies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over the past 20 years.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and general trends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o date. The conclusions related to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most research on instructional plans on the rhythm and musical instrument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the overall education method. Next, there were many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music

programs using Korean traditional music to influence various variables, indicating that the research topic was biased.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ypes of research focusing o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was found that research is being conducted in a variety of ways rather than the aforementioned research topic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research trends according to school level and type of disability, more than half of all studies were targeted 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llowed by the ages of all children and infants at other special schools.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the other hand, studies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period appeared to be insufficient, indicating that it was necessary to allow students with disabilities of various ages to experience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Fourth, as a result of yearly research status analysis, 45 papers were published for about 20 years in degree thesis and academic papers, and 2-4 on average. There are not many or fewer specific years, and the standard deviation is not large, but overall studies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are not active. Therefore, various Korean traditional music studi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conducted with the attention of teachers and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Fif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status of each area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expression was the most, followed by appreciation and other areas. In addition to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s the whole music education program has the most active area of expression, studies on various fields such as appreci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should also be conducted so that students with disabilities can learn and learn.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disability students'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research typ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ies were limited in Korea. In particular, since there are many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type and target of research, many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to enhance sociality and foster friendship.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very few studies related to communication in the type of disability. Since it is possible to communicate emotions throug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exchange and communicate various emotions through music, research 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related to communication should be conducted.

Third, research papers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sis and academic dissertations have only started compared to other studies. From 2000 to 2020, only 45 articles were studied. Therefore, it was found that in the actual educational field, more researches on variou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programs, treatment effects, and experiments should be

conducted.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not only physical expression but also appreci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in music activities is necessar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문화예술 중에서도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민족이 추구한 이상적 정신세계로, 자연적 특성 및 역사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정고운, 이해균, 2015). 특히 우리 민족음악인 국악은 혼이 깃든 음악적 모국어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따라 의사소통을 시작하는 것처럼, 헝가리 음악교육학자 졸탄 코다이(Zoltan Kodaly)는 음악이 어머니의 민요를 따라 배우고 소통하게 됨을 주장하며, 음악적 모국어(musical Language)를 창안했다(권덕원 외, 2008). 따라서 국악은 하나의 예술적 형태로 가치가 있으며, 아동에게 문화적 동일성을 심어주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한정수, 2010).

국악교육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며, 나라마다 문화가 있고 그 문화를 통해 민족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국악교육이 곧 국민교육의 근간이 된다(노동은, 200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악교육은 오랜세월 서양음악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국악교육은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고, 교육적 측면이 아닌 음악 자체의 즐거움은 대중음악에 크게 치중되어 있다(송용미, 이해균, 2013). 하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인해 국악 교육의 반영률이 음악교과서에서 40%를 차지하며 국악교육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국악의 중요성과 함께 음악이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해왔으며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음악교과는 당위성을 갖는다(김희규 외, 2011).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음으로 표현하며, 이를 음미하고 즐기므로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인

해 미적 아름다움의 경험, 창의성과 정서 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 및 삶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으며 합창, 합주, 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실천할 수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따라서 음악교육은 사회성, 창의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추구할 수 있다.

슈프랑거는 음악에서도 특히 민족적 정서를 담고 있는 춤과 음악이 한 민족의 진정한 규범질서를 표현한다고 보았으며(정은경, 2007), 따라서 조상들의 역사적 정신과 혼이 담긴 국악을 배우는 것은 장애학생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박정은, 박원희, 2012). 또한 국악은 3, 5음계에 기초하여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어 접근성 또한 높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과 국악의 관련성에서는 판소리가 정신지체아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풍물놀이가 발달장애아의 주의집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영미, 2005; 김미경, 2005). 따라서 국악교육이 장애학생이 보다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장애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예진(2020)은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가창 및 기악수업의 음악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슬기(201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음악수업을 개발하고, 음악점자를 활용한 지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하영(2012)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클래식을 활용한 음악 감상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인 지적 장애아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긍정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은 다음과 같다.

공아영(2012)은 우리 국악장단이 자폐성 장애학생을 음악적으로 치료하는데 있어 일반 음악치료 분야에 비해 동일하거나 보다 효과적임을 밝혔

다. 이민정(2014)은 시각장애학교의 국악 기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기·적성시간을 활용한 향피리 지도방안을 구안하였다. 최희중(2013)은 발달장애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전통 타악을 지도할 수 있는 전통 타악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에서 국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악 치료의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는 국악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과서 분석 및 학습 내용 분석, 악기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0년간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어떠한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연구대상이 변화해 왔는지 살펴봄으로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된 실태 및 일반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20년간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국악교육에 관한 연구 주제는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의 국악 교육 연구의 유형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학생의 국악 교육 연구의 대상은 어떠한가?

넷째, 장애학생 국악교육 연도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다섯째,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장애학생

장애학생이란 장애를 가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장애학생을 뜻한다.

#### 2) 국악교육

국악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음악을 기악, 합창, 합주 등을 배우는 것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교육과정에서의 국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전반적인 국악을 활용한 교육을 뜻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악교육의 의의 및 특성

#### 1) 국악교육의 의의

전 세계 모든 음악은 그 자체로 국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개별국가와 언어, 문화풍습, 사상과 감정 등이 달라 음악의 양상 또한 다를 수 있지만 음악이 주는 본질적 아름다움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문화를 창조해왔고, 단일 언어를 사용한 음악이 국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문화민족의 긍지를 지닐 수 있다(김정은, 2008). 특히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은 민족 문화 유산이 올바르게 지켜져야 하고 이에 우리 조상의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악은 민족적 차원 혹은 교육적 차원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01). 국악은 나의 뿌리이고,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이를 지키고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문화인 국악을 공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학자인 코다이(Joltan Kodaly)는 음악학습에 있어 자국의 민요를 배우는 것을 음악학습의 근간으로 보았으며, 오르프(Carl Orff) 또한 5음 음계에 기초한 자국의 민요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국악교육은 우리의 전통예술을 접하고 교육받아, 우리 고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기에 성인이 되기 전 학령기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강미

혜, 2007).

국악은 흔히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배우기에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편견이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국악 고유의 장단과 가락을 익혀왔으며, 교육기관에서 우리 소리를 배운다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분야이다(정은경, 2007). 실제 해방 이후 50년 동안 특수교육은 모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서양음악을 위주로 하고 있었으며, 양악과 국악의 균형이 맞지 않은 외래문화 편향적인 상태로 한국 전통 음악은 외면 받아왔다. 하지만 음악을 통해 정서함양과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기에 민족 고유의 음악을 알고 배워 이를 향유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이성천, 1991).

국악교육은 우리의 자주적 문화 민족의 긍지를 갖게 하고, 자아의식, 자주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므로 세계문화에 대비할 수 있게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충실히 교육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올바른 민족관, 국가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개인에게는 올바른 인격형성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이성천 외, 2003).

## 2) 국악교육의 특성

국악교육은 노래, 춤, 기악의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통합학습을 강조하는 교육의 관점에서 가, 무, 악을 함께 접근하여 배우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 고유의 장단을 익히기 위해 구음으로 장단을 익히거나, 신체의 무릎장단 혹은 손장단으로 리듬을 배우고, 가락을 익히는 등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장단과

가락에 따라 춤을 출 수 있으며, 메기고 받는 형식의 민요에서는 누군가 먼저 선창을 하고 이를 이어 받는 형식의 음악적 특성으로 학생들의 교육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이성천 외, 2003).

국악에서 가창은 메기고 받는 형식, 음계, 시김새, 장단, 음높이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요와 민요 등은 한국적 정서를 회복할 수 있고 노래의 길이가 짧으며, 반복이 많고 단순한 선율과 좁은 음역으로 이를 배우고 익히기에 어려움이 적다. 그리고 민요의 경우 추임새가 들어가고 돌림형식의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 또한 배움에 어려움이 덜할 수 있다(정은경, 2007).

기악의 경우 가창에서 학생 개개인이 가진 목소리의 역량의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기악에서는 우리의 고유장단만 가지고도 흥겨운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악은 서양음악과 비교했을 때, 화성이 없는 단선율의 수평적 음악으로 개별 음이 살아 움직이며 음 하나만으로도 의미와 생명력을 갖는다(박정은, 박원희, 2012). 그리고 국악은 5음계 혹은 3음계로 이루어져, 서양음악의 7음계보다 단순하다. 그리고 국악은 식물성 재질로 만든 악기를 소리를 내기에 음색이 부드럽고 온유하다(정원경, 2003).

이렇듯 국악의 의미와 중요성, 국악만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통해 개별 음 자체의 생명성과 단순한 음계, 고유 장단으로 무궁무진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장단까지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악은 세계 어느 민족과 종족을 떠나 고유한 음악을 간직하는데 있어 사회성을 가지게 하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 간의 문화적 민족적 교류가 가능하게 한다(전진이, 2009). 특히 치료의 기능을 가진 음악이 고대로부터 샤머니즘 등의 의식에서도 음악 치료 역할을 확인할 수 있으

며, 토속적인 고유 악기를 통해 리듬의 변화, 템포의 가속 등과 같은 보편적 음악요소가 들어있는 것이다. 특히나 리듬감은 인간의 기본적 본성을 자극하여 치료의 힘을 제공할 수 있다. 음악치료는 집중력, 사회기술, 인지, 소근육 대근육운동, 언어, 커뮤니케이션, 학습 감각 등 여러 영역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국악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음악치료를 통해 장애학생의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공아영, 2012).

## 2. 장애학생의 국악교육

음악은 가장 중요한 예술 활동으로서 장애의 여러 영역 중 특정 감각 수용 경로를 더 많이 활용하거나, 잔존하는 감각기능을 활용하게 해준다. 이처럼 음악활동은 개인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타인과 감성적 소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국악교육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 및 세계의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음악성, 즉 모든 음악 안에서 음악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미적 지각과 반응의 상호작용을 통해 음악을 경험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박정은, 박원희, 2012). 이에 인간의 삶에 있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정서를 함양하며, 사회성을 높이고,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 음악이 일반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음악을 통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은 곧 신체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인에게도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험과 권리인 음악이 예외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창의성과 음악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남인숙 외, 2013).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음악활동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나 정서적인 자극을 주고 주위의 환경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장애학생에게 효과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음악치료 선행연구를 통해 자국의 전통악기를 이용한 민족 음악을 강조하는 음악치료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다는 바이다.

특히 음악치료에 있어 전통문화 즉 국악은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성성이 되며 문화의 일체를 총칭하는 것이다. 국악교육은 발달장애, 정서행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애학생에게 국악교육은 우리민족 고유의 음악정서를 체험하게 해 신체와 정서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우며, 우리의 장단과 가락을 가르쳐 그들에게 음악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음악적 발달과 더불어 정서, 사회, 인지, 학업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악교육은 장애학생 전반적인 발달 측면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이다슬, 2018).

그리고 모든 민속음악은 치료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며, 단순한 바와 같이 주제의 친숙성, 원초적 리듬감, 멜로디와 가사의 반복, 멜로디와 음악형식의 단순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속음악에 접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간에 문화적 또는 민족적 교류가 가능하다(최희중, 2013).

특수교육에 있어 국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국악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김은주, 2017; 서수경, 2012; 정고운, 이해균, 2015) 혹은 국악교육의 교수학습방안 제안 연구(안재홍, 2009; 이우정, 2012), 국악교육이 장애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특수교육에서의 국악교육이 상

대적으로 양악보다 그 관심이 적으며, 선행연구 자체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국악교육과 장애학생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를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과 내용,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국악교육의 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 3. 선행연구 고찰

장애학생의 음악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예진(2020)은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가창 및 기악수업의 음악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음악수업은 청각과 촉각을 주로 사용하는 음악활동을 중점적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창활동과 기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적 학습 요소는 리듬교육이며, 리듬의 음악적 개념학습을 신체로 표현하며 유의미적인 음악학습을 제공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세기 음악교수법인 자크-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의 교수법, 졸탄 코다이(Zoltán Kodály)의 교수법과 칼 오르프(Carl Orff)의 교수법을 적용하여 음악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도방안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 둘째, 시각중복장애학생에게는 음악치료적 접근 고려, 셋째,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창작수업과 감상수업의 연구도 개발, 넷째,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적 기기에 대한 후속 연구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슬기(201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효과

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교육 음악수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음악점자를 활용한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과 자문을 통해 통합교육 음악수업 절차와 모형을 개발하였고, 시각장애 학생을 전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하여 수업 전략을 모색하였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 분석 양식과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음악 교사가 다양하게 음악점자를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안의 악보를 점자악보로 점역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시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음악 교사들을 위한 음악점자 지침서뿐만 아니라, 교수자들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하였고, 음악 교과서에도 음악점자 수록을 통해 음악 교사들의 관심과 학습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김하영(2012)은 특수교육 대상인 지적 장애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음악 감상이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2011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P초등학교 지적장애아 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충동성 감소, 스트레스, 불안, 집중력 향상, 정서적 안정 등에 효과가 입증된 클래식 음악 중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음악 17곡을 선별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클래식 음악 감상이 특수교육 대상인 지적 장애아 학생들의 선택적 주의집중 지속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클래식 음악 감상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 클래식 음악 감상이 특수교육 대상인 지적 장애아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 변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아영(2012)은 우리 국악 장단이 자폐성 장애학생을 음악적으로 치료하는데 일반 음악치료 분야에 비해 동일하거나 보다 효과적임을 밝혔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전통 타악기와 국악장단을 활용한 연주활동은 자폐성 장애학생의 주의집중행동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자폐성 장애학생은 점차 적극적으로 연주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 전통 타악기와 국악장단을 이용한 연주활동은 자폐성 장애학생의 부적응행동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자폐성 장애학생은 프로그램의 진행 빈도수에 따라 점차 공격행동이나 과잉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악장단이 일반적인 음악치료 분야와 동일하거나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민정(2014)은 특기·적성시간을 활용하여 시각장애학교의 국악 기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향피리 지도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각장애 특수교육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면, 첫째, 시각장애는 맹과 약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이 중등·고등학생에 비해 시각장애가 많았다. 우리나라 시각장애 특수교육 역사는 조선시대 관현맹인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인 선교사가 평양에 시각장애학교를 설립한 이후 활성화되었다. 둘째, 맹학생의 특수교육에 필요한 점자와 점자국악보를 알아본 결과, 한글은 박두성이 창안한 ‘훈맹정음’이 있었다. 셋째, 시각장애학생들에게 국악 기악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시각장애학생들이 정안학생들에 비해 기악활동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학생들은 향피리의 연주를 통해 국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음악성을 향상시켰다. 넷째, 시각장애학생들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악곡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섯째, 실제 지도 현장에서 입문단계는 향피리에 대한 이해 및 연주법을 학습하였고 민요·전래동요와 같은 연습곡에서 주로 낮은 음역대에서 학습한 결과, 악기의 구조, 운지법을 이해하고 낮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지도 현장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점자국악보를 독보하면서 연주하는 것이 가능



하고, 향피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악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희중(2013)은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통 타악 지도 교수·학습법을 연구하였다. 신체적·인지적 결함으로 인해 사회성과 언어기능이 부족한 발달장애학생에게 전통 타악을 지도하여 전통 장단의 연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음악 활동의 즐거움을 인식시키며 사회성 향상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첫째, 전통 타악 학습 활동은 발달장애학생 활동의 내적 구성을 용이하게 하고, 수업목표 도달에 도움을 주었다. 둘째, 설문조사 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한 발달장애학생들은 전통 악기 및 전통 타악 활동에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발달장애학생의 영역별 발달에 전통 타악 교수·학습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발달장애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나 거부감은 없었으며, 전통 타악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이렇듯 장애학생의 특수교육에서 국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악 치료의 방편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주제 및 유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 분야에서 국악교육과 장애 아동에 관한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4. 특수교육 대상자의 정의 및 특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정의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교육이 요구되는 아동이라 볼 수 있으며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정의는 곧 장애학생을 의미한다(전귀옥 외, 2012). 특수교육학 용어사전에 제시된 특수교육 아동의 정의는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육과정 교수 및 조직의 수정을 요구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 학습을 위해 부가적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아동으로 특수교육 아동이라 정의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09).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란 장애학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아동은 분명 장애 아동이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중 신청과 선정이 되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생으로 한정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기준이란 정상분포 곡선상에서 정상 범주라 할 수 있는 기준을 -2 표준편차부터 +2 표준편차 사이를 정상 혹은 일반적인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 이외 -2이하, 혹은 +2 이상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된다(전귀옥 외, 2012).

이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분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10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뜻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즉 장애학생의 수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등 교육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교육현장에서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악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여러 교육들이 교육의 공백없이 공평하게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논문의 선정 및 검색

본 연구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내의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연구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첫째,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www.riss.kr](http://www.riss.kr))와 DBpia., Kiss 학술연구센터에서 장애 학생에게 국악교육을 적용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자료 검색에 사용된 주제어는 장애, 국악, 장애학생, 국악교육을 검색하였다. 주제어 입력 시 동일한 용어이지만 띄어쓰기 차이에 따라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제어에 따라 띄어쓰기의 모든 경우를 검색하였다(김정호, 2017). 검색결과, 총 45건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 중 논문의 국문초록과 연구방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맞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와 연구유형의 논문을 최종 선정하였다.

둘째,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되어진 논문가운데 국내 대학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은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하였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분석논문에서 제외하였다. 성인을 대상에서 뺀 이유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장애학생이므로, 본 연구에서 장애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정하였기에 성인이 제외되었다.

## 2.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을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현황으로 제시했으며, 개별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의 경우 박이숙(2012)의 “중등학교 국악교육 석사학위 논문 동향 분석”의 분류 기준으로 바탕으로 지도방안, 교과서분석, 조사연구, 기타 주제연구 등과 함께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유형의 경우, 강혜경(2013)의 분석 기준에 의거하여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연구유형(예,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복합연구)을 분석하였다. 복합연구란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질적연구 중 두 가지 이상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을 뜻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화자 외(2011), 전병운과 권희연(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학교 급별,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현황으로는 발행년도별 논문 수, 석/박사, 학위논문 분류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음악 활동영역을 표현, 감상, 생활화, 그 외 영역으로 분류한 것을 참조하여(교육부, 2015) 한진리(20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장애학생의 국악활동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다. 국악교육 내용체계에 대한 핵심개념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 III-1>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영역	핵심개념	기능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리의 상호작용</li> <li>- 음악의 표현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부르기</li> <li>- 악기로 연주하기</li> <li>- 신체표현하기</li> <li>- 만들기</li> <li>- 표현하기</li> </ul>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요소와 개념</li> <li>- 음악의 종류</li> <li>- 음악의 배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별하기</li> <li>- 표현하기</li> <li>- 설명하기</li> </ul>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의 활용</li> <li>- 음악을 즐기는 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기</li> <li>- 평가하기</li> <li>- 조사하기</li> <li>- 발표하기</li> </ul>

출처 : 교육부(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 3. 신뢰도

본 연구의 신뢰도를 위해, 분석기준에 따라 분류되었는지 2인 이상의 분석자간 신뢰도를 실시하였다. 연구자 외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박사과정생 1인, 석사과정생 1인이 분석기준에 따른 분류가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간의 일치도를 점검하고, 분석자간 신뢰도를 신뢰도 공식(일치된수/일치된수+불일치수×100)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산출 결과 분석자간 신뢰도는 평균 92%로 나타났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년간 발표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의 국악과 장애학생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한 후, 총 45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논문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 후 문제점 제시 및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 국악 장단 및 악기, 전체 교육방법 지도방안 연구가 16개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15개 33.3%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메타분석 등의 기타 연구가 5개 11.1%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실태연구가 3개 6.7%, 프로그램개발과 교과서분석이 1개 2.2%로 나타났다. 연구주제에 따른 빈도분석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주제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구분	영역	빈도	비율(%)
연구주제	국악 장단 및 악기, 전체 교육방법 지도방안	16	35.6%
	교과서분석	1	2.2%
	국악을 활용한 치료방법연구	4	8.8%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15	33.3%
	프로그램개발	1	2.2%
	실태연구	3	6.7%



	기타연구	5	11.1%
계		45	100

## 2.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는 총 45편으로, 수업지도안 작성과 국악을 활용한 치료방법연구,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치료프로그램과 효과성 검증 등이 함께 이루어진 즉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혹은 실험연구와 질적연구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연구방법이 이루어진 복합 연구가 15편, 3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수업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연구가 13편, 28.9%로 많았으며, 실험연구가 9편, 20.0%, 문헌연구와 조사연구가 5편, 11.1%, 3편, 6.6%로 나타났다.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연구유형	문헌연구	5	11.1%
	조사연구	3	6.6%
	실험연구	9	20.0%
	질적연구	13	28.9%
	복합연구	15	33.3%
계		45	100

### 3.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은 학교 급별과 장애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교 급별 분석 결과는 총 45편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1편,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인 유치동, 전체학교 급별, 중고등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 26.7%,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 6편, 13.3%, 중학교 4편, 8.9%, 고등학교 2편 4.4%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3>과 같다.

<표 IV-3> 연구대상의 학교 급별에 따른 분석 결과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연구대상	영유아	6	13.3%
	초등학교	21	46.7%
	중학교	4	8.9%
	고등학교	2	4.4%
	기타	12	26.7%
계		45	100

장애 유형의 분석결과 지적장애가 13편 3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7편, 20%, 정서행동장애가 6편, 1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폐장애가 4편, 11.5%, 발달지체가 3편, 8.5%, 청각장애 1편, 2.8%, 학습장애 1편, 2.8%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장애와 건강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장애유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거나 질적연구 및 문헌조사 연구에서는 장애유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제외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 <표 IV-4>와 같다.

<표 IV-4> 장애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장애유형	시각장애	7	20%
	청각장애	1	2.8%
	지적장애	13	37.2%
	정서행동장애	6	17.2%
	자폐성장애	4	11.5%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1	2.8%
	건강장애	-	
	발달지체	3	8.5%
계		35	100

#### 4. 연도별 연구현황 분석 결과

연구결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게재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국악과 장애학생에 관련된 논문은 총 45편이다.

2003년 학위논문 1편 발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45편의 학위논문, 학술논문이 발행되었다. 2003년 학위논문 발행 이후 2005년부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발행되었다. 2009년에는 4편이, 2012년에는 5편이, 2013년에는 5편이, 2015년과 2019년에 4편이 발행되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4-5편 정도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연구현황에 관한 내용은 <표 IV-5>와 같다.

<표 IV-5> 발행년도별 논문 현황 수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	1	2	1	1	4	-	2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	5	3	4	3	3	3	4	3
합계								
45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국악과 장애학생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2003년 국악 타악기의 장단 맞추기 활동과 정서장애 아동의 행동변화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국악음률활동, ADHD 유아의 국

악교육활동, 정신지체 아동의 국악 수업 실험연구, 국악교육 실태연구, 국악을 이용한 음악치료연구 등 다양하게 범주가 확장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사논문 2편(4.5%), 석사논문 34편(75.5%), 학술논문 9편(20.0)으로 석사 논문에서 국악과 장애학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 분석 결과

국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결과 가창, 기악, 신체표현의 표현영역이 33편, 73.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감상 영역이 2편 4.4%로 나타났다. 그 외 교과서분석 및 동향분석, 메타분석 등으로 이루어진 영역이 10편, 22.2%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표현 영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6> 국악활동 영역에 따른 분석결과

구분	구분	빈도	비율(%)
국악활동	표현 영역	33	73.3%
	감상 영역	2	4.4%
	생활화 영역	-	-
	그 외 영역	10	22.2%
계		45	100

## V. 논의

본 연구는 장애, 특수학교, 국악, 국악교육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과 DBpia., Kiss 학술연구센터에 등록된 국내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세부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결과 국악 장단 및 악기, 전체 교육방법 등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화정(2018)의 연구결과와도 같으며, 특히 최근 2000년대 초반보다도 후반기에 음악치료 및 효과에 대한 특수교육 연구 빈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이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승희(2018)의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특수아동 음악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한 결과 지도안에 관한 연구 및 교수법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음악치료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비슷한 맥락을 나타냈다. 국악교육과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는 국악의 효과성 및 치료효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외 장애학생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과서 분석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서 분석의 경우 해당 교과 내 조사하고자 하는 영역의 비중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 해당 교육의 시수, 범위,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악교육의 경우 현재 국악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국악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악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적 보완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프로그램 개발 및 교과서 분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수업지도안 작성, 국악을 활용한 치료 방법 연구,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 검증 등 두 가지 연구 방법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업지도안 및 프로그램 개발의 질적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아(2013)의 연구결과 국내 음악치료 논문의 연구 유형은 기술 연구와 양적 연구 수행 비율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같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희(2018)의 연구에서는 실험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사연구, 응용연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 연구유형에 관한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와 같은 국악교육과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동향은 부족하여 선행연구결과의 비교분석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실험연구, 문헌연구, 조사연구가 복합성 연구나 질적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결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인 유초등, 전체학교 급별,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영유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비교할 수 없었으며, 김하영(2018)은 연구대상이 장애학생에서 비장애 학생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국악교육은 사회성 함양 및 자신의 정서를 알아채고 이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므로 유치원에서 처음 친구를 만나고 사회성을 기르는 유아 대상의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과 가장 활발한 교우관계를 쌓는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연도별 연구현황에 따른 분석결과 특정시기에 따른 편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박승희(2018)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다만 20여년간 학위논문, 학술논문의 연구가 45편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악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해 더 알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장애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각장애, 정서행동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사소통장애와 건강장애는 없었으며, 학습장애는 1편만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관련 주제가 많다는 연구 결과의 황은영과 박소영(2012)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편차가 다른 연구문제보다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학습장애의 경우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하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현황 분석결과 표현영역이 2/3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감상, 그 외 활동으로 나타났다. 국악활동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표현 능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진리(201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능동적인 형태인 표현 영역에서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국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외에 창작과 감상 등에서도 더욱 활발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져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종합하면, 비교할 선행연구조차 국악교육이 아닌 일반 특수교육 혹은 음악치료와 관련된 논문이 많으며, 연구 대상에 관한 것도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다양한 연구 대상 및



국악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긍정적 변화와 국악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주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된 실태 및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 국악 장단 및 악기, 전체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태연구 등은 부족하며, 교과서 분석은 매우 적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의 한 부분으로 장애학생에게 치료 및 국악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또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교육시장이 아닌 학교에서 국악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교과서 분석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 학습방법의 분석과 이를 통한 다양한 지도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실태연구는 양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악과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형 분석결과 앞서 연구주제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시에 적용한 복합연구가 가장 활발했으며, 다음으로 수업지도안 및 개발의 질적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수

업 지도안 작성에서도 필요하지만, 이에 선행하여 국내외 다양한 문헌연구와 실태 등의 조사연구가 먼저 많이 이루어지고 난후 이에 기반하여 수업지도안 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악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문헌적 탐색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교 급별과 장애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결과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기타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아동의 연령,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의 장애학생에게 국악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예체능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줄어든다. 하지만 국악교육은 학생의 정서함양과 심미적 아름다움의 깨달음 및 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효과를 가졌으므로,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중고등학생 또한 국악교육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유형에서는 시각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가 가장 많았으며 의사소통 장애와 건강장애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장애 영역에 따른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실제 국악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음악으로 의사소통의 활발함을 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며, 신체를 활용한 여러 음악활동을 통해 건강장애 아동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영역에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였다.

넷째, 연도별 연구 현황 분석결과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약 20년간 45편의 논문이 발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2-4편 정도가 발행되었다. 특정

년도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지 않고 편차가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국악과 장애학생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관심어린 시선을 가지고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국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 분석결과 표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상, 그 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국악교육 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표현 영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상과 창의성 계발 등의 영역 또한 장애학생들이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제언

상기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국악교육과 장애학생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유형, 국악음악활동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유형 및 대상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이 많아 사회성을 높이고 교우관계를 기를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 유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을 통해 정서를 교감하고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국악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장애학생과 국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타 연구에 비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5편

정도만이 연구된 바,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국악교육프로그램 및 치료효과와 실험 연구가 더욱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음악활동에서 신체표현 뿐만 아니라 감상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미혜(2007). 유아 국악교육 지도법 연구 - 민요를 중심으로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경(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의사소통 관련 연구 동향과 과제. 특수교육, 12(3), 269-287.
- 공아영(2012). 국악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 방법 연구 - 자폐성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별책 12**.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 사우.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선진(2007). **장애인복지론 2판**, 서울: 청목출판사.
- 권영미(2005). 전래동요를 이용한 풍물놀이와 발달장애유아의 주의집중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미경(2005). 판소리가 정인지체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경, 허계형, 최영해(2011). **특수유아교육**. 서울 : 교육아카데미.
- 김병하(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슬기(2018). 일반학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음악수업 지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경, 조홍중, 허승준, 추연구, 윤치연, 박중휘, 이필상, 김일명, 문장원,

- 서은정, 유언정, 김자경, 이근민, 김미숙, 김종인, 이신동(2009). **최신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윤옥, 김진희, 박희찬, 정대영, 김숙경, 안성우, 오세철, 이해균, 최성규, 최중옥(2005). **특수아동 교육의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은주(2017). 시각장애학교 학생을 위한 국악치료 실태 연구-음악교사 설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11(2), 69-91.
- 김정권, 김병하(2002).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정은(2008). 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교육 내용 분석 연구 - 7차 교육과정 중점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하영(2012). 음악감상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영(2018). 등재학술지 내 음악치료 연구 게재 동향.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1-22.
- 김화정(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 분야 연구동향 및 지식구조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9(1), 1-30.
- 김희규, 김찬수, 김현자, 민경훈, 손상희, 송민경, 이종열, 정동영(2011). **특수교육 음악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남인숙, 정광조, 최애나(2013). 국악중심 음악치료가 시각장애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9(4), 53-74.
- 노동은(2005). **전국 유아 국악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
- 대한특수교육학회(2000). **특수교육용어사전**,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박승희(2018). 특수아동 음악 교육에 관한 2007-2017년 국내 연구 총람.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원희, 김기창, 김영일, 김영옥, 이은주, 신현기, 한경근, 이숙정, 김애화, 윤미선, 김은경, 송병호, 이병인, 김송석, 양경희(2009). **함께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특수교육학**, 서울: 교육과학사.
- 박이숙(2012). 중등학교 국악교육 관련 석사학위논문의 동향분석 (2008-2012).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박원희(2012). 특수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및 학습내용 분석. **국악교육연구**, 6(2), 41-74.
- 박희찬(2005). 특수교육학의 개요와 발전과제, 서울: 교육과학사.
- 서수경(2012).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등부 국악교육의 실태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화자, 권명옥, 김수연(2011) 장애이해프로그램 적용이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 K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319-337.
- 송용미, 이해균(2013). 시각장애학교 초등과정의 국악교육 실태 연구. **시각장애연구**, 29(4), 131-155.
- 안재홍(2009).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국악수업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현화(2014). 국내 장애아동의 자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특수교육 관련 학술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림(2010). 특수아동교육의 이해, 경기: 서현사.
- 이다슬(2018). 교내 장애학생 국악 동아리를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경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2014).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향피리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천(1991).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서울 : 풍남.



- 이성천 외(2003). **알기쉬운 국악개론 : 국악을 해결합니다**.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이순례(1997). 유아 국악 교육에 관한 일 연구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비교. **강남대학교 논문집 제 30집**.
- 이예진(2020). 맹학교 특수교육 실태조사와 시각장애학생의 가창 및 기악 수업 교수학습방안 연구 : 20세기 음악교수법을 활용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정(2012).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국악 수업 방안 연구 : 오르프 교수법 활용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 전병운(2015).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음악과의 활동, 이해영역 수행수준 실태 분석. **지적장애연구**, 17(2), 109-135.
- 전귀옥, 강대옥, 박재국(2012). 장애아동 치료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부모의 인식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211-235.
- 전병운, 권희연(2010). 국내 읽기장애아 중재방법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2), 265-295.
- 전진이(2009). 국악을 적용한 음악치료에 대한 발달장애학생의 참여 및 사회성 반응 변화.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고운, 이해균(2015). 시각장애학교 중등과정 국악교육 실태. **시각장애연구**, 31(1), 19-40.
- 정원경(2003). 취학 전 아동의 국악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2007). 문화교육에 기초한 국악교육의 설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현아(2013) 국내 음악치료 전문 학술지 연구 현황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2), 55-77.
- 최희종(2013).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전통 타악 교수 학습법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수(2010). 코다이 교수법을 활용한 가창지도가 장애아동의 음악청취력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진리(2019). 2008-2017년 국내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은영, 박소영(2012). 국내 음악치료 관련 학위논문 동향 분석.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4(1), 1-19.
- 황정규, 이돈희, 김신일(2003). **교육학개론(2판)**, 서울: 교육과학사.

## 분 석 논 문

- 공아영(2012). 국악장단을 이용한 음악치료 방법 연구 : 자폐성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소현(2013). 음악치료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국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치료
- 권영현(2013). 국악을 이용한 음악치료.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치료
- 김동호(2020). 말장단을 활용한 사물놀이 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주의집중력과 과제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치료 및 효과
- 김문필(2019). 자폐아동 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한 특수교육지도안 연구 : 단일 국악기와 다양한 국악기의 비교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록(2011). 특수학교(중등) 모듬북 장단 지도 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17). 시각장애학교 학생을 위한 국악치료 실태 연구-음악교사 설문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국악교육연구**, 11(2), 69-91.
- 김은주(2019). 특수학교 장애 영역별 국악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일(2016).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모델링 활용 예술활동 중심 직업기술훈련 효과 : 과제 수행 행동 증진에 대한 단일대상 연구. **한국특수아동학회**, 18(2), 251-268.
- 김현경(2008). 국악 음악 프로그램이 ADHD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과 충동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 : 타악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치료

김효정(2014). 지적장애학생의 주의집중력 향상을 위한 도형악보 적용방안 연구 : 사물 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희선, 장윤희(2016).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국악 교육 전개와 과제. **국악교육연구**, 10(2), 33-55.

나현정(2019). 경도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중학교 통합국악수업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인숙(2019). 국악중심 음악치료의 연구동향과 메타분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희(2012). 지적장애아를 위한 국악교육연구 : 장구장단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2006). ADHD 아동을 위한 전통음악 지도방안 연구 : 4학년 제재곡을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랑희(2007). 특수장애학생을 위한 국악수업의 지도방안 : 대전맹학교 가야금병창 수업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정순(2011). 사물놀이와 민요 교육이 특수아동의 문제행동교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은, 박원희(2012). 특수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 제재곡 및 학습내용 분석. **국악교육연구**, 6(2), 41-74.

박혜영(2018). 특수학교의 국악교육 내용 고찰 및 지도방안 연구 기본교유5-6학년 중심으로 -. **국악교육연구**, 12(2), 27-48.

박혜주, 이숙경, 우덕상, 남현우(2020). 표현예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적용이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 표현력 신장과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국악교육연구**, 14(1), 127-174.

- 서경미(2005). 청각장애유아의 언어발달을 돕는 국악음률활동 연구. 추계 예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용미, 이해균(2013). 시각장애학교 초등과정의 국악 교육 실태 연구. **한 국시각장애교육 & 재활학회**, 29(4), 131-155.
- 심정선(2015). 전래동요가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장단 놀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재홍(2009). 정신지체 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국악수업방안.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정숙(2012). 장구장단치기 중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장구연주기능 및 역할 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덕상(2018). 전통음악 요소를 활용한 국악치료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연구 :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림(2015). ADHD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국악교육 연구 : 집단 소고 놀이를 중심으로.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름나라(2017). 시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대금·소금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능옥(2013). 사물놀이를 이용한 음악치료 연구 : 정신지체아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슬, 이미숙(2020). 장애학생 국악 동아리 운영에 대한 중등 특수교사의 경험. **교사교육연구**, 59(3), 371-384.
- 이민정(2014). 시각장애학교 초등학생을 위한 향피리 지도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진(2017).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구 중심의 장단 교수 학

- 습법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성(2014). 그룹음악치료가 시설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 국악 및 세계민속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란(2016). 음악요소의 비교감상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국악감상 지도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영(2006).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유아에 대해 통합 국악교육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희(2009). 가야금 교수법을 활용한 음악활동이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진이(2009). 국악을 적용한 음악치료에 대한 발달장애학생의 참여 및 사회성 반응 변화.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고운, 이해균(2015). 시각장애학교 중등과정 국악교육실태. **한국시각장애교육 & 재활학회, 13(1)**, 19-40.
- 정혜은(2015). 국악치료가 자폐성장애허소년의 지시 따르기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종묘제례악 중 일무동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순(2003). 국악타악기의 장단 맞추기 활동이 정서장애 유아의 부적응 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치료
- 최유미(2009). 장애유아의 놀이 관련 학위 논문 메타분석.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2012). 국악장단을 활용한 음악치료가 지적장애 청소년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희중(2013).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전통 타악 교수·학습법 연구.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기숙(2018). 특수교육의 국악가창 지도 방안 :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 4학년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문초록

# 장애학생의 국악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간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한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장애학생과 국악교육에 관련된 실태 및 일반적 동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한 분석결과 국악 장단 및 악기, 전체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지도방안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악을 활용한 음악프로그램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악과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형 분석결과 앞서 연구주제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 급별과 장애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을 분석결과 초등학생이 절반 이상이며, 다음으로 기타인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체 아동의 연령, 그리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교 시기의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의 장애학생에게 국악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도별 연구 현황 분석결과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약 20년간 45편의 논문이 발행되었으며, 평균적으로 2-4편 정도가 발행되었다. 특정 년도가 많거나 혹은 적거나 하지 않고 편차가 크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국악과 장애학생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교사와 예비교사들의 관심어린 시선을 가지고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국악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악활동 영역별 연구 현황 분석결과 표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상, 그 외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국악교육 뿐만 아니라, 전체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표현 영역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상과 창의성 계발 등의 영역 또한 장애학생들이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기 연구결과를 통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국악교육과 장애학생의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유형, 국악음악활동이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유형 및 대상에서 유아와 초등학생이 많아 사회성을 높이고 교우관계를 기를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악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 유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을 통해 정서를 교감하고 음악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국악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에서 장애학생과 국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타 연구에 비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45편 정도만이 연구된 바, 실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국악교육프로그램 및 치료효과와 실험 연구가 더욱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음악활동에서 신체표현 뿐만 아니라 감상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